1982年 階層別 所得分配의 推計와 變動要因

朱 鶴 中
尹 珠 賢

▷ 目 次 ◁

Ⅰ. 序 言
Ⅱ. 利用資料와 推計方法
Ⅲ. 1982年 推計結果와 時系列分析
Ⅳ. 所得分配의 變動要因
Ⅴ. 結 語

Ⅰ. 序 言

60年代初 以後에 있어서 우리 經濟가 나타낸 成長과 發展의 成果중에서 가장 注目되고 있는 것의 하나가 高度成長 가운데 相對的 衡平을 維持하였다는 事實이다[1]. 이와 같은 見解를 뒷받침하는 實證的 根據는 70年代 초기까지 주로 外國學者에 의하여 推計·分析되었다[2]. 그러나 所得分配에 대한 이들의 實證的 推計와 分析은 우리나라의 특유한 基礎統計의 制約을 看過하고 이용된 統計를 非現實的으로 解釋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3] 本硏究院에서 1965年, 1970年, 1976年 階層別 所得分布를 次善의 것(probable size distribution of income)으로 조심스럽게 推計, 分析한 바 있다[4].

여기서 試圖된 1982年 階層別 所得分布의 推計와 分析은 전술한 比較年度 以後 우리나라의 經濟社會發展이 진전되는 過程에서 所得分配가 어떻게 變化하고 있는가에 대한 學問的, 政策的 關心事에 대하여 하나의 示唆를 주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後述한 바와 같이 推計方法上 一貫性을 維持함은 물론 최근의 比較年度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1980年을 前後한 우리 經濟의 特殊事情을 감안하여 1982年을 比較年度로 선정하였다. 즉, 1979年에는 4/4分期의 政治社會的 不安이 있었고 1980年에는 1956年 以後 처음으로 負의 成長을 記錄하였으며 1981年에는 6.4%의 成長으로 겨

筆者 : 朱鶴中—韓國開發硏究院 先任硏究委員, 尹珠賢—韓國開發硏究院 主任硏究員

1) Hollis B. Chenery et al. (1974), pp. 6~16 및 Felix Paukert(1973), pp. 114~115.
2) 朱鶴中(1979), pp. 24~28 參照.
3) 裵茂基(1976), pp. 423~438 및 朱鶴中(1982), pp. 401~418 參照.
4) Choo Hakchung and Kim Daemo (1978) 및 朱鶴中(1979) 參照.

우 1979年의 1人當 所得水準을 回復하였으므로 1965年, 1970年, 1976年과의 比較時點으로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判斷되었기 때문이다.

이 論文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 部分으로 構成되어 있다. 첫째 1965年, 1970年, 1976年에 대하여 이미 試圖한 바와 같이 基礎資料와 推計方法을 一貫性있게 이용하되 可用資料의 變動에 따라 枝葉的인 方法論上의 變更을 가하여 1982年 階層別 所得分布를 推計하여 所得分配의 時系列變化를 考察하였다. 둘째로 1965年부터 1976年에 이르기까지 適用되었던 所得分配의 變動要因의 分析的 構圖를 가급적 그대로 援用하여 1982年 階層別 所得分配의 變動要因을 分析하였다. 끝으로 여기에 試圖된 所得分配의 變動要因分析과 아울러 우리의 經濟現況과 豫想되는 趨勢에 비추어 分配指標의 解釋上 留意事項과 所得分配改善을 위한 政策方向을 結論的으로 提示하였다.

Ⅱ. 利用資料와 推計方法

1. 利用資料의 性格과 制約

1982年 階層別 所得分布推計에 이용된 基礎資料는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과 農水產部에서 發刊된 1982年『都市家計年報』와『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書』이다. 이러한 家計調査에서 豫想할 수 있는 高所得階層의 漏落을 豫防하기 위하여 補完的으로 利用한 資料는 國稅廳의 同年度 勤勞所得資料와 綜合所得資料이다. 이 以外에도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에서 每年 社會指標作成을 위하여 實施하는 社會統計調査에서 1980年 家口所得이 調査, 集計된 바 있으나[5] 調査表의 問項이 간단하여 有意한 家口所得調査를 期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資料는 이용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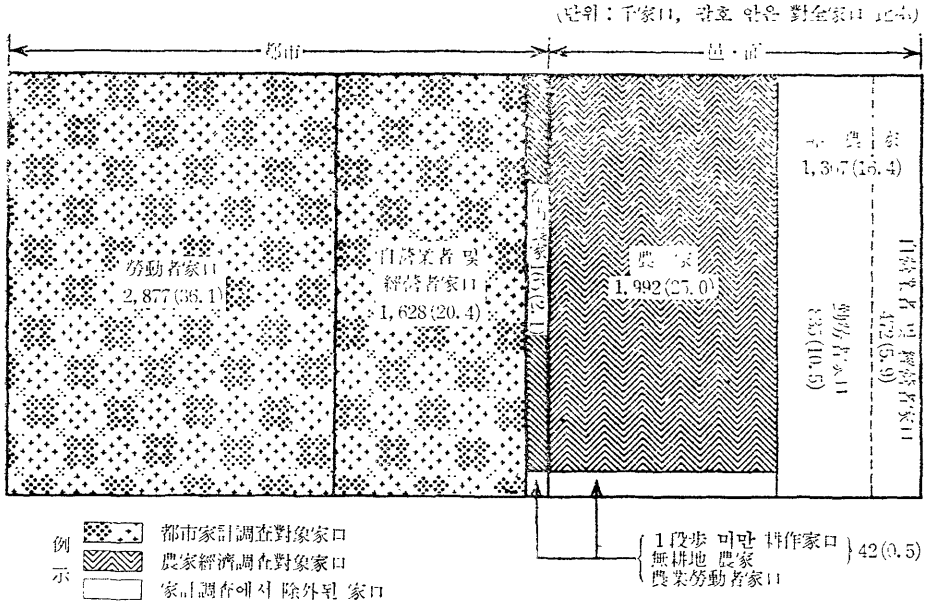
家計收支가 記帳式으로 集計되는 都市 및 農家家計調査資料는 1977年 이후 都市家口와 農家家口의 標本數가 각각 3,700餘家口와 3,375家口로 대폭 增加하였고 1981年에 都市家計調査의 所得上限線이 除去되는 등 家計所得調査上의 改善이 있었다. 그러나 都市와 農家家計調査資料를 所得分布推計에 바로 活用하기에는 아직도 여러가지 制約이 尙存한다. 이러한 制約에 대하여는 이미 다른 論文을 통하여 指摘한 바 있기 때문에[6] 여기서는 자세한 檢討를 省略하기로 하고 1980年 人口센서스資料를 活用하여 都市와 農家家計調査에서 除外되고 推計上 補完하여야 될 家口의 比重을 檢討하여 推計方法에 關聯짓기로 한다[7].

都市와 農家家計調査에서 漏落되어 補完되어야 할 것은 〔圖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全家口의 占有率 16.4%인 邑·面地域의 非農家와 2.0%인 漁家와 0.5%인 1段步 미만 耕作農家등이다. 또한 都市家計調査에 調査對象으로서 包含되기는 하였으나 家口主의 職種이 自營業者와 經營者인 家口에 대해서는 家計와 經營의 區分이 어려워 所得은 調査되어 있지 않고 家計支出만이 調査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별도 推計를 필요로 한다.

또 한가지 留意되어야 할 것은 都市家計調

5) 社會統計調査의 標本數는 약 22,500家口에 이른다.
6) 朱鶴中(1982), 附錄[2] 參照.
7) 分配의 推計年度는 1982年이면서 1980年度資料로서 檢討하는 理由는 1982年度 家口主職種別 家口分布는 標本 및 行政調査結果를 1980年센서스資料에 接屬시킨 것이기 때문에 全數調査의 正確性을 살리기 위하여서이다.

〔圖 1〕 地域別·職種別 家口分布(1980)



資料 : 經濟企劃院, 『1980 人口 및 住宅센서스報告』.
農水產部, 『1980 農業센서스報告』.

査에서 所得上限線이 除去되어 標本設計上 高所得家口가 包含되어 있으나 所得調査에 따르는 本質的인 問題로서 家計調査에 高所得階層이 代表性있게 包含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都市家計調査에서 1982年 당시 月收 90萬원 이상으로 규정된 高所得階層의 數를 母集團의 家口數로써 推定하여 國稅廳의 勤勞所得稅와 綜合所得稅資料 가운데 該當所得階層의 人員數와 比較, 檢討한 후 後者로써 補完하였다.

〈表 1〉 補完推定되어야 할 家口規模
(1980年 센서스 基準)

地域別, 職種別 家口	家口數(千家口)	全家口에 대한 比率(%)
都市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	1,628	20.4
邑面 非農家	1,307	16.4
(勤勞者家口)	(835)	(10.5)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	(472)	(5.9)
漁 家	157	2.0
1段步 미만 耕作農家 및 農業 勤勞者家口	42	0.5
合 計	3,134	39.3

2. 推計方法

1982年 階層別 所得分布의 推計에 채택된 推計方法은 本硏究院에서 과거에 試圖한 1965年, 1970年, 1976年 階層別 所得分布 推計에 援用되었던 推計方法과 최대한의 一貫性을 維持하고 있다. 다만 과거 3個 比較年度의 推計方法에 비하여 다른 점은 1段步 未滿 耕作 零細農家와 漁家所得의 推計에 있어서 그 重要性의 현저한 減退로 무리한 별도의 推計를 피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讀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히 소개하려는 것은 〈表 1〉에 지적된 家計調査에서 除外된 職種別·地域別

家口인 ① 邑·面居住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 ② 邑·面居住 勤勞者家口 ③ 高所得階層 등의 所得推定方法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都市家計調査가 1963年부터 實施되어 왔으나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所得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調査된 바 없고 이들의 家計消費支出만이 每分期 調査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所得分布推計에 있어서 가장 큰 問題는 이 職種家口의 所得推計이다. 理論的으로는 階層別 消費支出과 消費性向이 주어지면 所得推計가 可能하나 消費性向自體가 所得과 消費의 函數이기 때문에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의 消費性向을 推定할 수 없고 따라서 이 方法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한 便法으로서 可能한 것은 두 職種間의 消費性向이 같다는 假定을 前提하여 都市勤勞者家口의 消費性向을 推定하고 이 資料를 이용하여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의 所得과 階層別分布를 算出하는 것이다. 이러한 便法에 대하여 讀者는 물론 이러한 推計方法을 채택한 筆者 自身들에게도 불만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보다 좋은 代案이 될 수 있는 推計方法이 現時點에서 없기 때문에 부득이 두 職種家口의 所得階層別 消費性向이 같다는 巨視的「케인즈」流의 假定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非農家의 所得分布推計에 있어서 또 하나의 問題點은 家計調査가 行政單位로 都市에 限定되어 實施되고 있어 邑面地域의 非農家所得을 推定할 根據가 缺如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豫想할 수 있는 事實은 都市에 비하여 邑面地域의 非農家所得이 낮을 것으로 보이나 問題는 어느 정도 낮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하여서도 信憑性있는 調査研究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恣意的인 判斷을 가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推計에서 이용한 地域間의 平均所得差異는 서울과 餘他都市의 平均所得差異로써 調整하고 分配研究에서 흔히 이용되는 一定한 變異係數(constant mean-variance ratio)를 適用하여[8] 都市以外地域의 非農家所得分布를 推定하였다.

이와 같은 두 假定에 의한 都市以外地域 非農家所得分布의 推計에 대하여 다소 不滿스러운 感이 있음은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推計上 不滿을 解決할 적절한 資料가 우리에게 없으므로 이를 認定하면서도 方法論的 改善案을 또한 찾을 수 없다. 불만스러운 가운데 다행한 것은 이러한 便法을 適用하여 所得을 推計한 家口의 比率이 1980年 센서스에 의한 全家口의 16.4%와 非農家家口의 22.5%에 불과하여 援用된 假定에 誤謬가 있다 하더라도 全國 및 家口主職種別 所得分布의 推計結果에는 크게 影響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判斷된다는 事實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都市家計調査에 適用해 오던 所得上限線이 1981年부터 廢止되어 그 以前의 所得分布推計와는 달리 國稅廳資料에 의한 高所得家口所得을 補完할 必要性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推計者로서 疑問은 所得調査에 대한 一般的인 調査對象者의 反應을 勘案할 때 都市家計調査에 高所得家口가 調査標本에 적절하게 包含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疑問點을 檢討하기 위하여 都市家計調査結果만으로의 所得分布와 1982年 月所得 90萬원 以上의 高所得者에 관한 國稅廳資料를 都市家

8) S. Gupta (1977).

計의 月 90萬원以下 家口所得分布에 接續시킨 所得分布와 비교한 結果 큰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推計方法의 一貫性을 살린다는 觀點에서 國稅廳資料를 接續시킨 資料를 이용하였다.

여기에서 밝혀 둘 것은 高所得家口 所得資料의 信憑性에 대하여 比較, 檢討할 수 있는 資料의 制約으로 부득이 國稅廳의 高所得個人所得과 都市家計調査의 高所得家口所得을 直接的으로 比較分析하였다는 事實이다. 高所得個人所得者의 경우 家口主의 個人所得이 家口所得의 全部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少數의 最高所得階層은 財産의 分散所有로 個人所得과 家口所得에 差異가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그러나 주어진 個人納稅番號로서는 家口構成員의 家族關係를 밝혀 家口所得을 集計하지 못하는 制約이 있어 家口員의 個人所得이 合算되었어야 할 最高所得階層의 漏落이 憂慮된다. 이러한 最高所得階層의 所得은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漏落 또는 過少評價되는 것이 階層別 所得資料의 피할 수 없는 問題點이다.

끝으로 農家經濟調査에서 除外된 1段步 미만 耕作農家와 調査結果의 代表性問題로 公表가 유보된 漁家의 所得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問題이다. 1980年 農業센서스에 의하면 1段步미만 耕作 零細農과 漁家의 수는 각각 42千家口와 157千家口로서 全家口의 0.5%와 2.0%, 農漁家의 1.9%와 7.2%로서 그 重要性이 극히 微微하다. 특히 5段步미만 耕作零細農家의 경우 農外所得比率이 1982年 現在 62.3%에 달한 것을 보면 1段步미만 耕作農家의 農外經濟活動이 1段步이상 5段步미만의 農地耕作家口의 그것과 비슷하거나 그 以上으로 볼 때 實證的 根據가 약한 假定을 도입하여 별도로 推定하여야 할 必要性이 있을지 모르겠다. 또한 漁家의 경우에 있어서도 調査된 所得水準은 물론 그 階層別 分布가 不分明하기 때문에 全家口나 農水產業家口에서 차지하는 극히 작은 比重에 비추어 별도의 推計없이 農家所得分布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漁家所得의 취급은 漁家의 所得水準과 그 分布가 農家의 그것과 같다는 假定을 含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推計方法으로 〔圖 1〕과 〈表 1〉에 나타난 家計調査에서 除外된 家口所得과 分布를 推計, 補完하고 이를 家計調査結果와 結合시킴으로써 全家口 및 家口主 職種別 所得分布를 導出하였다.

Ⅲ. 1982年 推計結果와 時系列分析

1. 1982年의 所得分布와 그 集中度

上述한 바와 같은 推計方法으로써 1982年 全國 및 家口主職種別 所得分布를 十分位로 나타낸 所得占有率과 代表的인 分配指標인 지니係數와 十分位分配率에 의한 所得集中度는 〈表 2〉에 要約된 바와 같다.

1982年 全家口의 所得分配狀態는 지니係數로 0.357이며 下位 40% 所得階層의 所得占有率과 上位 20% 所得階層의 所得占有率을 對比시킨 十分位分配率로는 18.8/43.0로 推定된다.

이를 家口主職種別 또는 部門別로 살펴보면 農家의 所得分布는 지니係數로는 0.306, 十分

位分配率로는 20.8/38.3으로서 全家口나 勤勞者家口, 또는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의 分配狀態보다 良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農家를 제외한 非農家의 所得分配狀態는 지니係數로 0.371, 十分位分配率로 18.3/44.3이며 農家에 비하여 현저한 集中現象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非農家의 相對的 所得集中現象은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의 심한 內部的 所得隔差에 기인하고 있다.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의 所得分配狀態는 지니係數와 十分位分配率로써 각각 0.445와 14.6/50.1을 나타내고 있다. 十分位階層別 所得占有率을 살펴 보더라도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의 下位 40% 低所得階層이 점유한 所得比率이 農家나 勤勞者家口의 그것에 비하여 월등히 작고 上位 20% 高所得階層의 그것이 相對的으로 높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勤勞者家口의 所得分配는 지니係數와 十分位分配率로 각각 0.309와 21.2/39.4로서 農家의 所得分配狀態보다는 약간 나쁜 편이지만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의 所得分配狀態보다는 현저하게 良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農家와 勤勞者家口의 十分位分配率을 比較해 보면 勤勞者家口의 低所得階層과 高所得階層의 所得占有率이 農家의 그것보다 많고 中間所得階層의 所得占有率은 農家가 勤勞者家口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있어 이 두 部門의 所得分配狀態를 단순히 지니係數만으로 比較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지니係數의 弱點으로 인하여 지니係數上으로는 農家가 0.306으로서 勤勞者家口의 0.309보다 分配狀態가 약간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所得分配의 時系列變化

成長과 衡平의 調和라는 觀點에서 經濟社會發展의 成果를 評價하는 데 있어서 一時點의 所得分布와 集中度는 그 자체로서 意味를 지니고 있으나 一貫性있는 推計方法을 적용한 比較年度의 推計結果를 時系列分析으로 우리나라의 所得分配狀態의 變化를 追跡하여 보는 것이 보다 더 意味가 있다. 이러한 뜻에서 所

〈表 2〉 1982年 全國 및 家口主職種別 所得分配推計結果

(단위 : %)

十分位階層	全國	農家	非農家	勤勞者	自營業者및經營者
1	2.56	2.75	2.51	3.22	1.75
2	4.30	4.82	4.17	4.97	3.25
3	5.46	6.06	5.30	6.03	4.22
4	6.48	7.18	6.31	6.94	5.40
5	7.51	8.24	7.30	7.93	6.50
6	8.73	9.40	8.53	9.04	7.89
7	10.03	10.78	9.81	10.37	9.31
8	11.94	12.47	11.78	12.12	11.63
9	14.94	15.02	14.93	14.96	15.17
10	28.05	23.28	29.36	24.42	34.88
지니係數	0.3574	0.3061	0.3705	0.3090	0.4446
十分位分配率	18.80/42.99	20.81/38.30	18.29/44.29	21.16/39.38	14.62/50.05

得分配狀態를 全國과 部門別로 나누어서 時系列變化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全家口

〈表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2年 全家口의 階層別 所得分配는 지니係數로는 0.357로서 1976年의 0.391에 비하면 현저하게 改善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相對的으로 보다 衡平했던 1965年의 0.344와 1970年의 0.33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十分位分配率도 지니係數의 경우와 같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나. 農 家

1982年 農家의 所得分布는 〈表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니係數와 十分位分配率로써 각각 0.306과 20.8/38.3으로서 1976年의 0.327과 19.5/40.6에 비하여 有意하게 좋아졌으나 相對的으로 衡平했던 1965年의 0.285와 22.6/38.0, 1970年의 0.295와 21.2/38.6에 비하면 所得分配狀態가 상대적으로 惡化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現象은 全家口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推移를 보이고 있다. 즉, 農家의 所得分配는 1965年 以後 계속 惡化되어 오다가 1982年頃에 이르러 다소 改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農家의 所得分配狀態는 全家口와 非農家는 물론 다른 어느 職種別家口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所得分布狀態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農家의 良好한 所得分配狀態도 農家家口比率의 漸減趨勢로 인하여 全家口의 所得分布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9].

〈表 3〉 全家口 階層別 所得分布와 所得集中値 (1965~82)

十分位階層	1965	1970	1976	1982
1	1.32	2.78	1.84	2.56
2	4.43	4.56	3.86	4.30
3	6.47	5.81	4.93	5.46
4	7.12	6.48	6.22	6.48
5	7.21	7.63	7.07	7.51
6	8.32	8.71	8.34	8.73
7	11.31	10.24	9.91	10.03
8	12.00	12.17	12.49	11.94
9	16.03	16.21	17.84	14.94
10	25.78	25.41	27.50	28.05
지니係數	0.3439	0.3322	0.3908	0.3574
十分位分配率	19.34/41.81	19.63/41.62	16.85/45.34	18.80/42.99

9) 우리나라의 全家口數에서 차지하는 農家比率이 1965年에는 55.5%, 1970年에는 45.7%, 1976年에는 36.5%였는데 1982年에는 27.1%로서 점점 減少하는 趨勢에 있다.

다. 非農業家口

1982年度의 非農家의 所得集中度는 〈表 5〉에서 볼 수 있듯이 지니係數와 十分位分配率로 각각 0.371과 18.3/44.3으로서 1965年의 0.417과 14.1/47.0, 1976年의 0.412과 15.4/48.7에 비교하면 현저하게 改善되었으나 1970年의 衡平하였던 分配水準에는 미치지 못하고

〈表 4〉 階層別 農家 所得分布와 所得集中値 (1965~82)

十分位階層	1965	1970	1976	1982
1	2.66	3.17	2.46	2.75
2	6.39	5.19	4.32	4.82
3	6.67	6.00	6.05	6.06
4	6.91	6.88	6.62	7.18
5	7.16	8.10	7.81	8.24
6	9.63	9.01	9.13	9.40
7	10.83	10.59	10.48	10.78
8	11.73	12.42	12.51	12.47
9	15.61	17.87	16.79	15.02
10	22.42	20.77	23.83	23.28
지니係數	0.2852	0.2945	0.3273	0.3061
十分位分配率	22.57/38.03	21.24/38.64	19.45/40.62	20.81/38.30

있다. 非農業家口의 경우 全家口 所得分布集中値의 變化와 비슷한 推移를 나타내고 있으나 兩部門 모두 한 쪽으로의 뚜렷한 趨勢는 찾아볼 수 없다.

1976年에 비하여 1982年 非農業家口의 所得分配狀態를 현저하게 改善시킨 것은 勤勞者家口의 所得分配로서 〈表 6〉과 같이 지니係數로는 0.309, 十分位分配率로는 21.2/39.4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所得分配狀態는 1960年代 中盤 以後 勤勞者家口의 所得分配가 가장 좋았던 1970年의 0.304 및 20.9/39.1과 비슷한 수준으로 注目할 만하다.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의 所得集中度는 〈表 7〉에서 보듯이 1982年에 지니係數와 十分位分配率로 각각 0.445와 14.6/50.1로서 나타나 있다. 이러한 所得分配狀態는 1976年의 지니係數 0.449에 비하여 약간 改善되었으나 十分位分配率 11.4/48.4에 비하면 低所得階層과 高所得階層 모두의 所得占有率이 增加되었고, 결국 中間所得階層의 所得占有率이 줄어든 셈인데 이로써 所得分配가 改善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다. 한편 1965年의 0.384와 15.2/43.1, 1970年의 0.353과 17.6/42.0에 비교하면 分配狀態가 현저하게 相對的으로 惡化되는 傾向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自營業者 및 經營者 家口의 所得分配는 農家를 제외한 다른 家口의 所得分配 時系列變動趨勢와 같은 變化推移를 보이고 있으나 그 變動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1965年 이후부터 계속

〈表 5〉 階層別 非農家 所得分布와 所得集中値 (1965~82)

十分位階層	1965	1970	1976	1982
1	0.22	2.56	1.64	2.51
2	3.02	4.67	3.56	4.17
3	4.98	5.33	4.61	5.30
4	5.83	6.31	5.55	6.31
5	7.36	7.45	6.56	7.30
6	8.29	8.41	7.83	8.53
7	10.43	10.02	9.52	9.81
8	12.92	12.21	12.03	11.78
9	18.56	16.29	18.56	14.93
10	28.29	26.75	30.14	29.36
지니係數	0.4167	0.3455	0.4118	0.3705
十分位分配率	14.05/46.95	18.87/43.04	15.36/48.70	18.29/44.29

〈表 6〉 階層別 勤勞者家口의 所得分布와 所得集中値(1965~82)

十分位階層	1965	1970	1976	1982
1	0.28	2.59	2.08	3.22
2	1.90	5.39	4.50	4.97
3	5.31	6.32	5.53	6.03
4	7.00	6.46	6.40	6.94
5	7.68	8.85	7.50	7.93
6	9.72	8.94	8.59	9.04
7	11.00	10.16	10.15	10.37
8	13.32	12.19	11.89	12.12
9	16.67	14.84	15.48	14.96
10	27.13	24.26	27.87	24.42
지니係數	0.3993	0.3043	0.3553	0.3090
十分位分配率	14.49/43.80	20.94/39.10	18.51/43.35	21.16/39.38

〈表 7〉 階層別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의 所得分布와 所得集中値(1965~82)

十分位階層	1965	1970	1976	1982
1	2.24	2.58	1.15	1.75
2	3.44	4.06	2.41	3.25
3	4.06	4.59	3.36	4.22
4	5.48	6.39	4.43	5.40
5	6.93	6.96	6.01	6.50
6	8.85	9.26	7.79	7.89
7	10.44	10.59	9.91	9.31
8	15.47	13.55	16.57	11.63
9	17.95	18.01	22.27	15.17
10	25.14	24.02	26.11	34.88
지니係數	0.3838	0.3528	0.4490	0.4446
十分位分配率	15.22/43.09	17.62/42.03	11.35/48.38	14.62/50.05

하여 全家口의 所得分配狀態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解釋된다.

라. 타일集中要因分解

各 部門別 所得分布 및 所得集中値의 時系列分析에 이어서 全體 所得集中値에 미치는 各部門의 영향을 나타내 주는 타일指數의 要因分解結果를 時系列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10]. 〈表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82年 全家口의 所得集中値는 農家, 勤勞者,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 등 部門內의 內部要因이 98.5%를 차지하고 있으며 部門間의 所得隔差에 의한 所得不均衡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部門內 要因 중에서도 農家가 13.6%로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치고 勤勞者家口가 29.0%,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가 55.8%로서 職種別家口의 時系列分析內容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分析에서 特記해야 할만한 사실은 部門間의 所得隔差가 1965年과 1970年에 10% 內外를 說明하던 것이 1976年의 6.0%와 1982年의 1.5%로 그 比重이 더욱 낮아지고 있으며 반면에 部門內部에서 차지하고 있는 所得不均衡의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의 所得不均衡에 대한 영향력은 過去 20~40%에서 1982年에는 55.8%로 大幅增加함으로서 이 部門의 內部要因에 의한 分配問題의 심각성을 반영해 주고 있다.

Ⅳ. 所得分配의 變動要因

所得分配는 무수한 歷史的, 經濟的, 社會的 制度的 要因이 相互作用하여 決定되기 때문에 所得分配의 變動要因을 體系的으로 分析, 規明하기는 現在로서는 대단히 어렵다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여기에서의 所得分配變動要因

〈表 8〉 「타일」指數에 의한 所得集中要因分解(1965~82)

	1965	1970	1976	1982
部門間의 所得集中要因	8.09	12.40	5.99	1.54
部門內의 所得集中要因	91.91	87.60	94.01	98.46
第1部門(農家家口)	(35.97)	(24.50)	(24.59)	(13.61)
第2部門(被傭者家口)	(33.80)	(28.89)	(30.90)	(29.01)
第3部門(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	(22.14)	(34.21)	(38.52)	(55.84)

10) 所得集中度를 나타내는 「타일」指數의 특징은 所得集中度를 部門間과 部門內의 所得隔差要因으로 分解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실제로 주어진 어떤 情報(message)가 전달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事件(event)의 不確實性이 클수록 $h(x)=\log\frac{1}{x}(0\leq x\leq 1)$로 표시되는 情報價値(information content)가 커진다는 情報理論(information theory)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期待値를 구하면 $H(x)=E[h(x)]=\sum x_i h(x_i)=-\sum x_i \log x_i$로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所得集中度測定에 援用하였다. 즉 y_i를 각 個人의 所得比率이라 하면 $(0\leq y_i\leq 1,\ i=1,2,\cdots,N)$, $H(y)=\sum_i y_i \log\frac{1}{y_i}$이 되어 所得이 완전히 均等할 때 $\left(y_i=\frac{1}{N}\right)$, $H(y)=\log N$이고 完全히 不均等할 때 $(y_i=0$ 또는 $1)$, $H(y)=0$이므로 「타일」指數의 公式은 $TI=\log N-H(y)=\sum_i y_i \log N y_i$로 變形되어 完全均等일 때 $TI=0$, 完全不均等일 때 $TI=\log N$으로서 所得集中度의 두 極限値를 나타낸다. 「타일」指數를 分解하면 Yg를 g部門의 所得比率, Ng를 g部門의 人口比率이라 할 때 $TI=\sum y_i \log N y_i=\sum_g Y_g \log\frac{Y_g}{N_g/N}+\sum_g Y_g\left(\sum_{i\in g}^{Ng}\frac{y_i}{Y_g}\log\frac{y_i/Y_g}{1/N_g}\right)$로 되어 前項은 部門間의 所得集中度를, 後項은 部門內의 所得集中度를 나타냄으로써 所得集中度의 要因이 分解된다.

分析은 本季刊誌의 創刊號에서 試圖한 바 있는 分析構圖를 따르기로 한다[11]. 이와 아울러 1976年 以後 우리 經濟社會發展과 變化에 따라 나타난 分配와 關聯된 巨視的 主要要因을 分析構圖의 變動要因과 連結시켜 1982年을 즈음하여 나타난 所得分配의 變化를 1976年까지의 分配의 變化에 비추어 說明하기로 한다.

1. 巨視的 變動要因

所得分配의 直接的인 變動要因分析에 앞서 먼저 指摘하여 둘 것은 所得分配變動의 背景을 이루는 1976年 以後부터 1982年에 이르는 우리 經濟社會의 巨視的 經濟現象이다. 이 期間의 經濟社會的 變動에 대하여 分配와 關聯한 여러가지 背景이 있으나 特記할 것은 이 期間에 나타난 세가지 重要한 特徵이다.

첫째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第2次石油波動과 1979年 國內의 政治的 變動과 1980年의 凶年 등으로 인한 負의 成長과 이 期間을 除外한 1979~82年間의 韓國的 低成長이다[12]. 低成長과 負의 成長期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財產所得이 減少하고 雇傭機會가 縮小되는 것으로 特徵지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極東地域에 있어서는 特殊한 勞使關係로 인하여 不況이라 하여도 西歐에서와 같이 經營者側에서 勤勞者의 休職과 解雇를 强要하지는 않으며, 不況으로 인하여 財產所得이 減少함으로써 衡平造成的인 與件이 形成되는 傾向이 있다. 이러한 負의 成長과 低成長現象이 西歐나 그 影響圈의 社會에서와 같이 被雇傭者의 형편을 度外視하고 景氣에 따라 採算에 맞추어 休職과 解雇를 敢行하는 社會에서는 財產所得의 減少와 勤勞階層의 勤勞所得 喪失이 所得分配에 相反된 影響을 미쳐 相殺될 수 있다. 그러나 前者는 發生하고 後者는 慣行上 發生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의 負의 成長과 低成長의 경우 高成長時期에 비하여 우리 勞使關係 慣行이 衡平造成的인 與件을 形成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第2次石油波動으로 인한 1980~81年間의 극심한 인플레 以後 우리의 經濟史上

〈表 9〉 主要 巨視經濟指標의 變動

(단위 : %)

	經濟成長率	1人當 GNP 增加率	都賣物價 上昇率	小賣物價 上昇率	金利水準 (一般商業 어음割引 率 基準)
1976	14.1	12.3	12.1	15.3	15.5 (75.10) 18.0 (76.8)
1977	12.7	11.0	9.0	10.2	16.0~19.0(77.7)
1978	9.7	8.1	11.7	14.4	19.0 (78.6)
1979	6.5	4.9	18.8	18.3	19.0 (79.9)
1980	−5.2	−6.7	38.9	28.7	25.0 (80.1) 20.0 (80.11)
1981	6.2	4.6	20.4	21.3	19.0 (81.11) 17.0 (81.12)
1982	5.6	4.0	4.7	7.2	16.0 (82.1) 10.0 (82.6)

資料 : 韓國銀行, 『調査統計月報』 및 『經濟統計年報』, 當該號.

11) 朱鶴中(1979), pp. 38~41 參照.

12) 여기서의 低成長은 相對的 槪念으로서 우리나라의 低成長은 先進國이나 다른 開發途上國에 비하여 高成長 水準이다.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었던 1982年의 物價安定이다. 물론 피부로 느끼는 物價上昇과 統計上에 나타난 物價上昇에는 다소 差異가 있다. 그러나 1980年의 都賣物價上昇率 38.9%와 小賣物價上昇率 28.7%, 1981年의 都賣物價上昇率 20.4%와 小賣物價上昇率 21.3%에서 1982年에 각각 4.7%와 7.2%라는 指數上의 物價安定은 指數와 피부로 느끼는 物價上昇의 差異를 감안한다 하여도 相對的 安定의 폭이 대단히 컸다. 通說的으로 인플레는 俸給生活者등 定額所得者의 相對的 所得比率을 蠶食하고 財産所得者의 그것을 增大시켜 衡平沮害要因을 이룬다. 1982年의 劃期的인 物價安定은 여기서 所得分配의 比較時點으로 잡은 어느때보다도 대단히 有意한 水準이었으며 흔히 經濟學에서 이용하는 同一한 條件이라는 假定(ceteris paribus assumption) 下에 대단한 衡平造成的 要因을 이루었다는 假說을 提起할 수 있다.

마지막 假說은 1980年 1月을 絶頂으로 하여 一般商業어음割引率 基準으로 年 25%에 달하였던 金利가 1982年 1月에 年利 16%의 水準으로 調整되고 6月에 다시 10% 水準으로 大幅 引下됨에 따라 一般的인 財産所得의 相對的 減少를 誘發하여 所得分配에 衡平造成的인 影響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13]. 우리 經濟가 오랜 동안 나타내고 있는 金融市場의 二重構造라는 特殊性으로 인하여 銀行金利의 引下가 全般的인 金利引下幅과 같은 利子所得의 減少를 結果한다고 斷定짓기는 어려우나 銀行利用者의 利子所得의 減少는 물론 이에 준한 投資收益과 私債利子率의 低下에 따라 配當所得과 地下經濟의 利子所得의 減少가 隨伴하였음을 否認할 수 없다. 반면에 利子率의 引下는 企業의 金利負擔을 輕減케 하여 一時的인 超過利潤과 이에 따른 配當所得의 增大를 誘發하고 所得分配를 惡化시킨 否定的인 側面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後者의 可能性에 비하여 前者의 利子所得의 減少와 이에 따른 投資收益의 減少로 衡平造成的 可能性의 强度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通說的인 階層別 利子所得 및 投資所得分布를 豫想하면 所得分配의 改善에 肯定的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1976年부터 1982年까지 나타난 經濟實績 및 金利의 政策的 操作과 所得分配와를 關聯 지은 세가지는 이에 대한 實證的 檢證을 試圖할 理論的 統計的 制約이 있어 어디까지나 理論的인 假說에 不過하다. 그러나 理論的 根據의 通說性에 비추어 60年初 以後 어느 때보다도 1982年에 成長, 安定, 金利 등 세가지 側面에서 所得分配改善에 유리한 經濟的 背景이 形成되었던 것으로 判斷된다.

2. 關聯된 下部要因

1982年을 포함한 比較年度에 있어서 所得分配에 直接的으로 관련된 變動要因을 要約하면 〈表 10〉과 같다. 이러한 變動要因은 家口主職種別 所得分布와 이것이 構成하는 全家口의 所得分布의 變化를 說明할 수 있는 實證的 根據를 부분적으로나마 提示하여 준다. 1982年에 있어서 所得分配의 變動要因을 편의상 農

13) 이 假說에 대하여 匿名의 檢討者는 회의적인 反應을 보였다. 그의 立場은 여기에 지적한 衡平造成的影響이 低利子—超過利潤—超過配當으로 결국 高所得階層의 所得增大로서 相殺된다는 것이다. 筆者는 두가지 點에서 이 見解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째는 이 見解에 名目과 實質利子率間의 區分이 뚜렷하지 않고, 둘째 低利子에서 超過利潤이 發生하더라도 現行法人稅率로 보아 納稅後利潤은 대폭 減少하게 되기 때문이다.

家와 非農家로 구분하고 非農家를 다시 勤勞者家口와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로 細分하여 變動要因을 考察하기로 한다.

1982年의 農家所得集中度는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1976年에 비하여 有意하게 좋아지기는 하였으나 1970年 水準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農家所得分配의 變化를 〈表 10〉에 나타난 農家所得指標와 關聯시켜 살펴보면 農家所得集中度에 關聯된 指標 가운데 大農比率을 除外한 모든 指標의 變化가 一貫性있는 方向으로 變動하고 있다. 相對的으로 耕作規模가 큰 1.5町步 以上 耕作農家比率은 1976年에 비하여 3.2%「포인트」增加한 20.9%로서 農家의 內部集中度(within inequality)에 正의 影響을 미치고 나머지 0.5町步미만의 小規模農家의 農外所得比率, 農業失業者 및 不完全就業者比率 등이 分配의 改善에 좋은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小規模農家의 農外所得比率의 增加는 1976年에 비하여 18.8%「포인트」나 현저히 增加하여 62.3%에 이르고 農業失業者의 比率은 큰 變動이 없으나 週18시간 未滿의 不完全就業者 比率이 1976年의 2.0%에서 1982年의 0.3%로 激減되어 農家所得分布의 改善에 決定的 要因을 이루고 있다.

都農間의 所得隔差를 나타내는 指標로서 活用되는 都市勤勞者家口平均所得에 대한 農家

〈表 10〉 比較年度에 있어서 所得分配의 作用要因

作用要因	1965	1970	1976	1982
〈農業部門〉				
· 農家 比率	55.5	45.7	36.5	22.5
· 都市勤勞者家口平均所得에 대한 農家平均所得比率	99.7	67.1	100.4	103.2
· 小農의 農外所得 比率(耕地面積 0.5町步 미만)	41.1	49.2	43.5	62.3
· 大規模農家 比率(耕地面積 1.5町步 以上)	15.5	18.6	17.7	20.9
· 失業者 比率	3.1	1.6	1.0	0.9
· 不完全就業者 比率(週當 18時間 미만)	6.2	4.7	2.0	0.3
〈非農業部門〉				
· 勤勞者家口 比率	32.3	35.2	41.2	47.3
· 失業者 比率	13.5	7.4	6.3	6.0
· 不完全就業者 比率(週當 18時間 미만)	1.3	0.8	0.3	0.1
· 學歷別 賃金隔差 —(大卒者平均給與／國卒者平均給與)×100	—	330.7 (1971)	425.4	(347.0)
—(大卒者平均給與／中卒以下平均給與)×100	—	(302.1) (1971)	388.6	317.0
· 職種別 賃金隔差 (行政管理職平均給與／全職種平均給與)×100	—	270.9 (1971)	343.6	254.8
·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 比率	12.2	19.1	22.3	30.2
· 大製造業體 比率(200人 以上)	1.7	2.9	5.9	4.7
· 大製造業體生產額占有率(200人 以上)	54.4 (1966)	69.8	77.5	73.6
· 大製造業體從事者 比率(200人 以上)	39.8 (1996)	51.0	62.4	55.4

註 : 괄호안의 숫자는 1976년의 國卒者／中卒以下의 給與比率을 1971년과 1982년에 그대로 적용한 것임.

資料 : 經濟企劃院, 『主要業務指標』, 『經濟活動人口年報』, 『鑛工業「센서스」報告書』. 勞動廳, 『賃金實態調査報告書』.

平均所得比率은 1976年의 100.4에서 1982年의 103.2로 勤勞者家口의 平均보다 높은 水準을 계속 維持하고 있다. 1982年 農家所得의 이와 같은 比率은 1968年부터 實施하여 온 農産物 價格支援政策에서라기 보다는 前述한 農外所得의 大幅的인 增加와 都市勤勞者의 賃金水準抑制에 基因한 것으로 보이며 非農家와의 部門間所得隔差를 緩和하여 全家口의 所得分配를 改善하는 效果가 있는 것으로 解釋된다. 그러나 部門內 所得分配가 가장 좋은 農家의 比重이 계속적으로 대폭 減少되는 反面, 그렇지 않은 非農家의 比重이 높아져 家口全體로서 所得分配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치고 있다.

非農家의 所得分布는 經濟發展과 産業化에 따라 날로 그 構成比가 증대되는 勤勞者家口와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의 所得分布로써 構成되어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1982年의 勤勞者家口所得分布는 1965年과 1976年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대단히 낮은 所得集中度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1982年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의 그것은 1976年 以前 3個比較年度 가운데 가장 集中度가 높았던 1976年과 거의 비슷한 水準의 所得集中度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職種別家口의 所得分布狀態는 각기 다른 變動要因이 作用하기 때문에 이를 區分하여 下部要因을 檢討하기로 한다.

自家評價額을 除外한 勤勞者家口所得은 1982年 現在 89.7%가 勤勞所得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職種의 階層別 所得分布는 이를 構成하는 勤勞者의 給與差異에 의하여 大部分 說明될 수 있다. 一般的으로 給與差異는 〈表 10〉과 같이 勤勞者의 學歷別과 職種別 給與差異라는 두 側面에서 表示된다[14]. 우리나라에 있어서 賃金統計가 作成된 1971年 以後 學歷別 및 職種別 給與差異는 1976年 前後까지 계속 擴大되다가 이 以後에는 給與差異의 大幅的인 緩和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즉 國卒學歷의 勤勞者의 平均給與를 基準으로 大卒者 平均給與는 1971年의 3.3倍에서 1976年의 4.3倍로 急增하였던 것이 1982年에는 약 3.5倍 水準으로 給與差異가 크게 減少되었다. 이를 中卒者以下를 基準하여 보면[15] 1976年에 大卒者平均給與比率이 388.6이었다가 1982年에 317.0으로 減少되었다. 職種別 給與差異의 變化도 그 例外가 아니어서 一般的으로 給與水準이 제일 높은 行政管理職 平均給與를 全職種平均給與로써 對比한 比率이 1971年의 270.9에서 1976年의 343.6으로 增加되었다가 1982年에 254.8로 또한 減少되었다.

이와 같은 給與差異를 나타내는 두 系列의 變動幅은 다소 差異가 있으나 그 變動方向은 一貫性이 분명히 높다. 특히 學歷別 給與差異는 1982年에 1971年 水準에 達하지 못한 데 비하여 全職種의 平均給與를 分母로 한 行政管理職 平均給與比率이 1971年水準 以下로 1982年에 낮아진 事實은 下厚上薄의 給與調整의 結果인 것으로 解釋된다. 이에 따라 1982年 勤勞者家口의 所得分配狀態는 1970年과 거의 같은 좋은 狀態를 이루고 十分位分配率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82年 下位 40% 階層의 所得占有率이 1970年의 그것보다 약간 더 큰 것이 特徵이다.

14) 여기에 이용된 給與差異는 勤務年數와 年齡을 統制하여 比較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給與의 比較値이다. 學歷別 및 職種別 勤勞者의 構成은 退職者와 新參者의 學歷과 産業構造의 變化에 따라 서서히 變化된다. 따라서 이 比較値는 정확한 것은 아니다.

15) 우리나라 勞動力의 高學力化로 인하여 近年에 있어서 學歷別 給與差異는 中卒者以下를 기준으로 集計되어 있어 時系列比較上 부득이 무리하게 接續(splicing)하였다.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의 所得分配의 變化率에 關聯된 可用資料는 극히 限定的인 實情이다. 그 理由는 이 職種의 家口所得은 給與, 利潤, 利子 및 賃貸料 등 여러 所得項目이 複合되어 構成되어 있고 自營業者의 경우 家計와 經營의 分離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不當所得과 投機利潤 등 地下經濟의 所得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職種部門의 所得分配의 變化를 追跡하는 代變數(proxy variable)로서 全製造業에 대한 200人 以上 大企業의 業體數比率, 生產占有率, 從業員比率 등 企業集中度를 이용하였다. 〈表 10〉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業體數, 生產額, 從業員 등의 모든 200人 以上 大企業의 占有比率이 1966年부터 1976年까지 보다 集中的인 傾向을 보이다가 1982年에 이르러 集中的인 趨勢가 꺾이고 있다[16]. 이러한 大企業占有率 가운데 가장 意味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業體數比率로서 1976年의 5.4%에서 1982年에 4.7%로 減少한 것이다. 이와 같은 大企業體數의 相對的 減少는 中小企業의 勞動集約的 特徵을 反映하여 生產額占有率이 3.9%「포인트」減少한 데 비하여 從業員比率은 7.0%「포인트」減少하였다.

以上과 같이 大規模 製造業의 相對的 位置가 萎縮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2年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 所得分配는 1976年에 비하여 지니係數로는 거의 變動이 없고 十分位分配率로는 下位40%의 所得占有率이 1976年에서 1982年까지 3.2%「포인트」增加함으로써 上位20%의 그것에 비하여 相對的으로 줄아졌다고 할 수 있으나 中位40% 階層의 所得占有率減少로써 分配改善의 意味가 相殺된 것으로 解釋된다. 따라서 이 部門에 있어서는 形式的으로는 大企業集中度가 多少 緩和되고 있으나 內部不平等度에 아무런 變動이 없는 것으로 보아 生產의 物的手段의 支配形態로서 大企業集中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全家口의 所得分布는 農家와 非農家의 所得分布를 合成한 것이다. 그러므로 全家口의 所得分配狀態는 農家와 非農家의 그것과 그 相對的 比重으로서 決定된다. 家口主職種別所得分配의 變化는 이미 考察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에 대하여 전반적인 特性만을 지적하고 產業構造의 變化에 따라 職種別家口比率로 나타나는 構造的 特性에 대하여 言及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建國以後의 土地改革, 土地所有의 上限制限, 農業收益性의 相對的 落後 등 여러 歷史的, 制度的, 經濟的 要因으로 農家의 所得分配狀態는 다른 職種家口의 그것에 비하여 계속 相對的으로 높은 衡平度를 維持하여 왔다. 反面에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는 그 本質的인 多樣性 때문에 항상 相對的으로 높은 不平等度를 나타내어 왔다. 이와 같은 部門別, 職種別 所得分布의 特性을 前提하면 經濟成長과 產業化過程에 따른 產業構造의 變化는 部門別, 職種別 家口構成의 變化를 誘發하여 다른 與件이 同一할지라도 全家口의 所得分配는 이 構造的인 理由로 惡化된다.

1965年에까지 遡及하지 않더라도 〈表 1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農家家口의 構成比는 1976年의 36.5%에서 계속 대폭 減少하여 1982年에는 22.5%가 되었고 이의 減少에 따

16) 朴世逸 博士가 檢討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 大企業集中은 단순히 일정수의 就業者以上을 大企業으로 정의하여 본 것으로 所有나 支配形態로 본 大企業의 集中과 구분된다. 그가 지적하였듯이 所有와 支配로 본 大企業集中現象이 심화되더라도 少數의 集中과 多數의 平準化가 相殺되어 全體의 分配에 큰 影響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라 被傭者家口는 1976年의 41.2%에서 1982年에 6.1%「포인트」增加하였으며 가장 增加幅이 큰 것이 被傭者 및 經營者家口比率로써 1976年의 22.3%에서 1982年의 30.2%에 달하였다. 이러한 현저한 家口構成比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全家口의 分配指數가 1976年에 비하여 현저히 改善되고 1965年의 分配水準에 이르렀음은 有意한 所得分配의 改善이라고 하겠다.

V. 結　語

1982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所得分配는 1970年 이후부터 나타내던 不平等傾向을 有意하게 改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分析的 結果인 所得分配의 相對的 改善에 대하여 讀者 가운데 다소 회의적 反應을 가질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회의적 반응의 根據로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利用資料와 推計方法에 따른 問題點이다. 이러한 問題點의 一部는 所得分配의 실증적 연구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기초자료의 이용자로서 不可抗力的 制約으로 容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可用資料의 제약 가운데 자료의 이용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問題點을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吟味하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推計方法의 一貫性을 유지하고 세부적인 부분의 推計方法上 變更이 그 一貫性을 해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다. 이미 본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硏究에 있어서 利用資料와 推計方法上 一貫性의 維持는 최선을 다하였다고 自負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결과에 있어서 추계된 所得分布와 산정된 分配指數의 精度는 이용자료의 결함으로 추정할 수 없는 誤差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나 時系列上 所得分配의 변화를 추적하는 分析的 目的에는 합당한 자료라고 하겠다

둘째로 예상할 수 있는 회의적인 반응의 근거는 독자의 피부로 느끼는 所得分配와 여기에 計測分析된 所得分配間의 乖離에서 발생한다. 이 회의의 논거는 理想論的인 正當性을 인정하여야 하나 可用資料의 제약을 고려하면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이론적으로 소득분배에 대한 관심은 소득 그 자체의 분포보다 이 代變數가 나타내는 生活單位로서 家口의 厚生및 生活水準差異에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분배에 있어서는 投機利潤 및 不當所得 등 地下經濟性 購買力의 支配까지 포함한 廣義의 소득이 추계와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이용된 定說的 國民所得槪念의 課稅前 家口所得은 분배론의 現實的 本質을 나타내는 데 미흡하다. 이 問題點은 本人도 共感하여 소득분배연구에 있어서 이른바「購買力所得」의 槪念的 重要性을 이미 강조한 바 있으나 이를 포괄한 經濟理論의 再定立과 統計資料의 不備 등 根本的인 制約으로 이에 대한 의미있는 試圖는 아직도 遙遠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예상할 수 있는 회의적 반응의 理由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70年代 중반이후 국민 대다수와 전문가 사이에 人道主義的 福祉와 衡平에 대한 期待水準이 날로 팽창하는데 따라 독자가 갖는 형평의 기대수준에 비추어진 分配指數上 改善의 의미가 低評價되는 심리적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소득분배의 변화는 景氣, 雇傭條件, 農業의 作況 등 수많은 短期的

要因은 물론 私有財産과 같은 資本主義의 본질과 生物學的 遺傳, 人力開發, 財産形成 및 相續 등 많은 長期的 要因이 복합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經濟社會의 進化過程에서 中期에 실현할 수 있는 소득분배의 개선으로서 같은 기간에 急昇하는 衡平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不可能하다.

일반적으로 衡平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 不平等度에 대한 容認度(level of tolerance)가 낮아져 時系列上의 分配改善과 國際比較上의 相對的 衡平의 意義를 간과하는 心理傾向은 客觀的 分析에서 경계되어야 하겠다.

70年代를 통하여 나타났던 所得不平等化의 추세가 80年代初에 이르러 꺾이고 1982年에 所得分配의 有意한 改善을 나타낸 것은 분배에 대한 영향이 相反된 수많은 作用要因의 複合的 結果라고 하겠다. 80年代初에 있어서 소득분배에 肯定的으로 작용한 要因 가운데 중요한 것은 國民經濟의 巨視的 變數로서 1980年의 負의 成長 및 1981~82年의 相對的 低成長, 物價安定, 低金利와 이에 준한 資本利潤의 下落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아울러 所得分配의 肯定的 要因으로 學歷別 및 職種別 賃金差異의 현저한 緩和, 小農 및 零細農의 農外所得比率의 급속한 增大, 農業不完全就業者의 有意한 減少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所得分配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친 要因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따른 就業構造의 變化로 인하여 非農家의 계속적인 增加, 그 가운데서도 특히 自營業者 및 經營者 家口의 持續的인 急增이라고 하겠다. 農家에 비하여 非農家의, 또한 非農家에 비하여 自營業者 및 經營者 家口의 內部的 不平等度가 높아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就業構造의 變動만으로써 所得分配의 不平等이 深化될 素地가 있다.

여기서 시도된 所得分配의 推計와 分析은 분배문제의 本質이 部門間 不平等度(between inequality)가 아니라 內部的 不平等度(within inequality)임을 再確認하고 있다. 더우기 우리나라와 같이 農業立國의 可能性이 희박하여 工業化를 통한 經濟社會發展이 불가피할 경우 앞으로 對應하여야 할 分配問題의 核心은 都農間의 그것이 아니라 1982年 현재 77.5%를 占하고 계속 增大되는 非農家間의 그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의 그것임을 재차 强調해 둔다.

이와같은 前提下에 國際比較上 우리 分配의 相對的 衡平을 앞으로도 계속 維持하고 增大되는 衡平에 대한 국민의 期待水準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安定的 適正成長을 實現하는 가운데 給與差異의 緩和, 農外所得의 增進, 雇傭機會의 增大 등 衡平造成的인 政策目標에 대한 노력은 물론 零細 및 中小企業에 대한 育成과 아울러 最高所得階層에 대한 所得集中抑制가 政策的으로 誘導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가장 크게 유의되어야 할 것은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 가운데 零細業者階層과 最低賃金勤勞者로서 이들이 非正規的 部門(informal sector)의 屬性에서 탈피하여 經濟活動의 主流속으로 合流하게 誘導하고 適正한 成長의 果實을 享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政策을 신중하게 立案, 執行하여야 하겠다.

▷ 參 考 文 獻 ◁

裵茂基, 「아델만의 韓國所得分配平等論 檢討」 『經濟論集』, 第15卷 第4號,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76. 12.

朱鶴中, 「階層別 所得分配의 推計와 變動要因」, 『韓國開發硏究』, 創刊號, 1979. 3.

_____,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硏究院 硏究叢書 30, 1979.

_____,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下)』, 韓國開發硏究院 硏究叢書 49, 1982.

Adelman, Irma, "Redistribution with Growth: Some Country Experience—South Korea," in Chenery et al., *Redistribution with Growth,* 1974.

Chenery, Hollis B. et al., *Redistribution with Growth,*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Choo, Hakchung, and Daemo Kim, *Probable Size Distribution of Income in Korea: Over Time and By Sector,*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November 1978.

Gupta, S., "Alternative Development Strategies of Korea(1976-1990) in an Input-Output Dynamic Simulation Model",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250, March 1977.

Mizoguchi, Toshiyuki, Do Hyung Kim and Young Il Chung, "Overtime Changes of the Siz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in Korea, 1963-71," *The Developing Economies,* Vol XIV, No. 3, September 1976.

Oshima, Harry T.,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The Postwar Experience of Asian Countries," *Malayan Economic Review,* Vol. XV, No. 2, 1970.

Paukert, Felix, "Income Distribution at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 A Survey of Development: A Survey of Experience," *International Labor Review,* Vol. XVIII, Nos. 2-4, 1973.

Theil, Henry, *Economics and Information Theory,* Amsterdam: North Holland Publishing Co., 1967.